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현황과 문제

오가실 · 신희선 · 김희순*

목 차

서 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 론
참고문헌

서 론

우리나라 간호연구는 1962년에 석사학위과정을 처음 개설하게 되면서 학위논문 의 필연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몇 개의 역사적 분기점에 의해서, 즉 1970년에 간호학회지의 창간으로 인해서, 1978년에 간호대학에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면서, 발표되는 연구의 수와 수준이 놀랄만큼 변화되어 왔다. 또한 1989년에 ICN을 계기로 한국 간호역사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아 국제적 수준으로 비약하는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 간호연구의 동향에 관한 연구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3개 연구논문지에 게재된 276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조결자, 1977)를 비롯하여 홍근표 외(1983), 오가실(1987)의 보고서가 있다. 1962년부터 1983년까지의 학위논문을 조사한 결과(오가실, 1987)에 의하면 총 559편의 논문중에 1960년대에는 16편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서 1975년까지는 102편, 1976년부터 1980년간에는 233편, 1981년에서 1983년에는 206편에 달해 수적 증가가 놀랄만하였다. 김수지(1989)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총 1,135편의 학위논문이 나왔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급증 곡선을 나타냈다고 했다.

본 연구는 2000년을 향하는 1991년을 기해 한국 간호의 연구 경향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 간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 및 목적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질문지 조사 :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활동 현황을 기술하기 위함.
2. 심층 면접 : 간호 연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함.
3.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 간호관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공통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함.

연구방법

1. 질문지 조사 : 1990년 자료수집 당시 전국에 간호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간호대학과 간호학과 의 교수와 대학원생을 전수 조사하였다. 전 부 6개 학교의 총 283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150명(71.4%)이 질문지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141개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도구는 자기 응답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Research Profile)는 세계 6개국의 간호 연구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영어로 된 질문지를 연구자가 번역하고 2명의 대학교수에게 번역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회수하였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는 연구자가 의뢰한 해당학교의 교수나 대학원 학생 중의 한명이 질문지의 배부와 수집을 도와주었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질문지 조사에 응답한

* 오가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신희선(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김희순(연세대학교 간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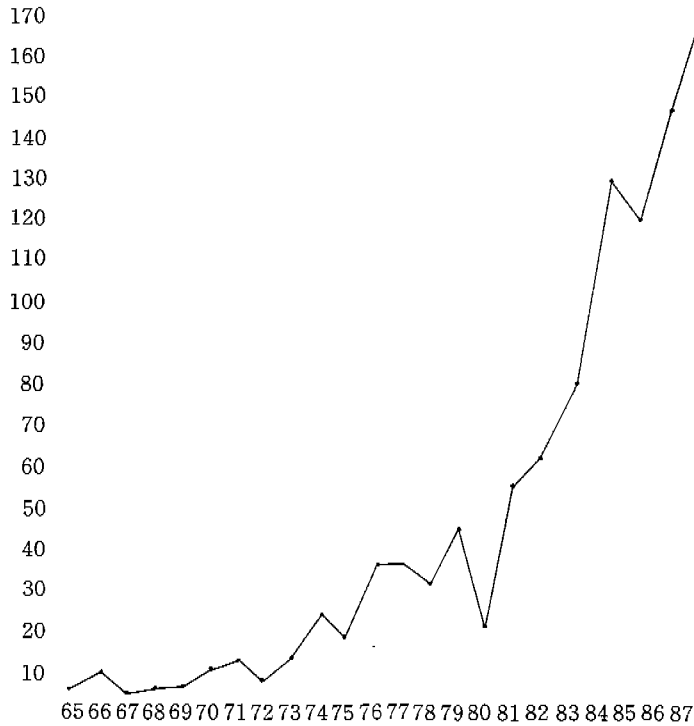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발표 논문수 변동곡선(1962-1988)*

* 자료출처 : 김수지(1989)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2세에서 62세로서 평균 연령은 35.2세였다(표 1).

응답자의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은 평균 11.0년이었으며(범위 0-41년) 총 응답자 141명중 97명(68.8%)이 간호계 학교에서 교수직에 재직하고 있었다. 38명(27%)은 병원에서 간호과장이나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사람이 과반수(56.0%)를 차지했으며 26명(18.4%)은 박사학위 소지자였다(표 1).

응답자 141명 중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은 76.6%(108명)이었으며 23.4%(33명)는 연구 경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표 2). 연구경험자와 무경험자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면 연구경력이 없는 사람은 유경험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대부분이 병원 간호사(60.6%)였다. 한국의 간호연구 상황에 대해서 연구 유경험자 중 18.5%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무경험자는 12.1%만이 활발하다고 했다

(표 3). 연구경험자의 37.1%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한 것에 비하여 50%에 가까운 연구 무경험자들은 간호연구활동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연구방법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응답에서 연구 유경험자들의 90% 이상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연구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응답했다(표 4).

2. 심층 면접 : 질문지 응답자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 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만나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6개의 개방식 질문으로 구성된 면접지(Focused Interview Guide)를 사용하였다. 이는 심층적 자료수집과 질문지 조사의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3. 학술지 게재 논문 조사 :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주요 3개 논문 게재지인 대한간호학회지, 대한간호, 중앙의학에 게재된 논문 389편을 조사하였다. 1983년부터 검토한 이유는 이때까지 정리된 기존의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 종설 연구는 제외하였다. 게재된 논문 수는 연간 39~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1)

(점수 : 141)

	연구경험자(108)		무경험자(33)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연 령	*37.0<37.7<62.0		*22.0<27.0<35.0		*22.0<35.2<62.0	
경 력	* 1.0<13.3<41.0		* 0.0< 3.7<10.0		* 0.0<11.0<41.0	
근무처						
간호대학	89	82.4	8	24.2	97	68.8
병 원	18	16.7	20	60.6	38	27.0
보건진료소	0	0.0	0	0.0	0	0.0
기 타	1	0.9	5	15.2	6	4.2
학 력						
간호전문대학	0	0.0	0	0.0	0	0.0
간호대학	6	5.6	21	63.6	27	19.2
학사(기타4년제대학)	3	2.8	6	18.2	9	6.4
석사(대학원)	73	67.6	6	18.2	79	56.0
박사(대학원)	26	24.0	0	0.0	26	18.4

* 최소값<평균값<최대값

〈표 2〉 현재 간호 연구 활동 참여 상황

	인수	비율
3개 이상의 Project	34	24.1
1-3개의 Project	74	52.5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33	23.4
계	141	100.0

〈표 3〉 한국 간호연구 활동상황에 대한 견해

	연구경험자		무경험자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활발하다	20	18.5	4	12.1	24	17.0
보통이다	48	44.4	14	42.4	62	44.0
부족하다	40	37.1	15	45.5	55	39.0
계	108	100.0	33	100.0	141	100.0

〈표 4〉 간호연구방법에 대한 학습경로

	인수	비율*
석사 또는 박사과정	99	91.7
개인의 연구 경험	15	13.9
단기·보수교육과정	14	13.0
간호대학과정	11	10.2

* 연구유경험자 108에 대한 비율

66편 정도 게재되었으며 연간 발표 논문은 평균 50편이었다. 이 중 학위 논문은 9.3%(28편)였으며 비학위논문이 90.7%(361편)였다.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중에는 21.1%가 학위논문인데 반하여 나머지 두 게재지에서는 총 232개 논문 중에 2개에 불과했다. 연구자는 86.6%가 교수였으

며 8.3%가 임상간호사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질문지 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심층 면접 내용과 학술지 게재 논

분에 의한 문헌연구 결과를 비교, 대조하여 제시하였다.

간호 연구의 특성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설계는 Diers(1979)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질문지 조사에서 연구 경험이 전혀없는 자를 제외한 연구 유경험자 108명이 최근 실시한 연구의 수는 139개로서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요인탐구(Factor-Searching)를 위한 기술 또는 탐색 연구였다(42.6%). 관계탐구(Relation Searching)를 위한 변수간의 관계 연구, 연관검증(Association Testing)을 위한 상관, 또는 비실험적 연구, 인과적 가설 검증(Causal Hypothesis Testing)을 위한 실험, 예측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5). 이 결과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변화는 인과관계 가설 검증연구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23.1%).

한국간호 연구의 동향에 관한 종래의 연구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탐색과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연구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었다. 비율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50% 이상 70% 정도가 단순히 현상을 서술하는 요인 분리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1980년대(1981~1983년) 연구에서 인과관계 가설 검증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연구는 학위논문 중 10% 정도(오, 1987)에 불과했다. 한편, 1980년부터 1989년 4월까지 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총 171편 중 유사실험 연구가 38편으로 22.2%이며 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에서도 398편의 논문 중에서 22.6%가 인과관계 확인(변수간의 관계,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였지만 아직도 65.8%가 탐색과 기술(서술탐색, 상관 또는 비실험)을 목적으로

〈표 5〉 응답자가 실시한 간호연구의 특성(1)

연구의 특성	조사분석		문헌분석**	
	인수	비율*	인수	비율
<u>연구목적</u>				
서술 또는 탐색	46	42.6	114	28.6
변수간의 관계	34	31.5	38	9.5
가설 검증	25	23.1	52	13.1
상관 또는 비실험	21	19.4	148	37.2
평 가	10	9.3	16	4.0
기 타	3	2.8	30	7.6
<u>대상자</u>				
환 자	83	76.9	130	32.7
간호사	34	31.5	68	17.0
일반인	25	23.1	101	25.4
간호대학생	22	20.4	31	7.8
간호교육자	3	2.8	1	0.3
기타(시설, 기관)	6	5.6	67	16.8
<u>연구장소의 이용</u>				
병실(병원)	73	67.6	171	43.0
학 교	37	34.3	63	15.8
외 레	18	16.7	25	6.3
가 정	18	16.7	38	9.5
보건진료소	6	5.6	6	1.5
수용기관	5	4.7	15	3.8
보건소	5	4.7	2	0.5
기 타	3	2.8	78	19.6

* 연구 유경험자 108명에 대한 비율

** 학술지 게재 논문분석

로 하고 있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16편(4.0%)의 평가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점이다(표 5).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가장 많았고(76.9%) 그 다음이 간호사, 일반 건강한 사람의 순서였다(표 5). 한편,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20.4%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간호교육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간호 연구의 관심이 간호대학생과 간호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교육을 위한 연구에도 점차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임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간호연구의 경향에 대한 일 연구에서는 1960년대에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가 70년대에는 임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고 80년대에는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Research Utilization) 초점이 주어졌다는 Champion(1989)의 보고와 대조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한 사람이 연구대상자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간호의 대상을 환자뿐 아니라 건강인의 건강 유지, 증진으로 넓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자를 직접 연구의 대상자로 선택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건강인의 현상을 먼저 관찰하고 설명한 후 환자와 비교, 대조하여 환자에게 접근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응용 연구의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된다. 이 같은 경향은 게재 논문 분석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가 환자의 경우 32.7%이며 이와 비슷하게 25.4%가 건강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었다(표 5). 1980년부터 1989년 대한간호학회논문을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한 경우가 28.7%, 정상인이 28.1%, 간호사가 25.7%였다.

간호연구가 실시되는 장소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병원이었으나(67.6%) 학교, 외래, 가정 등으로 연구장이 확장되는 경향도 보였다(표 5).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에서도 병원(43%)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가정, 외래의 순이었다(표 5).

최근에 실시한 연구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의 축적을 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아니라고 응답한 수가 25%에 불과했고 75%는 긍정적 응답을 했다. 그러나 이론 또는 가설이 도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60.2%(65명)가 아니라고 했다(표 6-1). 이에 대한 학술지에 게재된 398편의 논문의 결과에서는 73.6%(293편)가 가설이 없는 논문이었으며 이론적 기틀이 있는 연구는 4%에 불과했다(표 6-2). 이같이 질문지에 대한 응답과 게재논문 분석의 결과가 다른점은 1990년까지 이미 게재된 논문과 게재할 준비가 완료된 논문의 경향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1990년 이 시점이 또 하나의 다른 즉, 이론에 기초하고 이론을 위한 연구로의 전환점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와 연결되어 게재된 논문의 분석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변화는 간호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질문지법이 54.2%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생리적 측정법, 기록지, 문헌, 면접, 관찰 등이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한가지 자료수집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두가지 이상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20%에 가깝게 발견되었다(표 6-2).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5.7%에 해당했으나(표 7)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 결과는 48.7%로 나타나서 연구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심층적 논의와 그에 의한 후속제안이 없는 논문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응답자가 실시한 간호연구의 특성(2)

	인수	비율
지식축적을 위한 연구		
예	81	75.0
아니오	27	25.0
계	108	100.0
이론 또는 가설 도출		
예	43	39.8
아니오	65	60.2
계	108	100.0

〈표 6-2〉 학술지 게재논문의 특성(2)

	인수	비율
가설유무		
유	81	20.4
무	293	73.6
비해당*	24	6.0
계	398	100.0
이론적 기틀 유무		
유	16	4.0
무	382	96.0
계	398	100.0
자료수집 방법		
질문지법	216	54.2
면접법	20	5.0
생리측정	28	7.0
문헌, 기록지	25	6.2
관찰	6	1.5
비디오 촬영	2	0.5
두가지 이상 상호보완	76	19.4
기타	25	6.2
계	398	100.0

* 사례연구

〈표 7〉 응답자가 실시한 간호연구의 특성(3)

후속연구의 제안	조사 분석		문헌 분석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예	71	65.7	194	48.7
아니오	37	34.3	204	51.3
계	108	100.0	398	100.0

〈표 8〉 흥미있는 간호연구의 영역

순 위	영 역	빈 도
1	스트레스/적응	25
2	암환자 간호	18
3	동통	8
4	사회적 지지	6
5	노인 관리	6

응답자들의 흥미있는 간호연구의 영역에 대한 응답은 개방 질문으로 나열하도록 해서 108명이 199개의 다양한 개념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이 나열된 개념을 묶어 보면 스트레스/적응이 가장 많았고, 암환자, 동통, 사회적 지지, 노인의 순서였다(표 8). 게재논문 분석에 의하면 단일 개념으로 연구되어진 논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개념은 스트레스(46회)였으며

병원업무와 조직에 관계된 것(23회)은 두번째, 세번째는 자아개념(17회)이었다. 건강관리 실태, 건강에 관한 태도와 지식, 통증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상관관계 연구의 수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같은 연구설계에서 관심 있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역시 스트레스/불안이었으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두번째,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세번째였다.

표 9는 게재논문 분석의 실험연구에서 다루어졌던 개념으로 1회이상 나온 것만 나열한 것이다. 독립변인으로 많이 선택된 영역은 간호교육이나 정보제공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생리조절, 이완요법, 지지간호, 자극훈련은 몇 번 반복되어 연구된 것이었다. 종속변인으로는 생리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불안, 자아개념, 이행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의해야 하는 현상은 1980년대부터 스트레스에 관해 흥미있어서 연구된 논문은 많으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실험연구는 두드러지게 축적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연구자가 기존연구의 개념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영역을 기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 같은 경향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추세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총 171편의 게재논문에서 다루어진 개념은 183개로서 258회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개념은 스트레스, 동통, 불안이었는데 2회이상 연구되어진 개념은 30개에 그친 점이다. 김수지(1989)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난 연구의 주요개념이 역시 스트레스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두번째였다. 연구의 관심영역으로서 암환자간호, 동통, 노인관리 등이 제시된 것은 산업 기술 사회의 건강문제의 경향을 잘 반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흥미있는 간호연구의 영역을 연구자들의 전공임상 분야에 따라 다른 성향이 나타났다. 성인 간

〈표 9〉 게재 실험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

개	개	빈	도
독립변인			
	간호교육(정보제공)	11	
	생리조절	7	
	이완요법	6	
	지지간호	4	
	자극훈련	4	
	기 타	12	
종속변인			
	생리반응	16	
	불안	8	
	이행	4	
	자아개념	4	
	스트레스	3	
	상호작용	3	
	동통	2	
	기 타	3	

〈표 10〉 간호연구의 장애요인

장	장	인	비
애	요	수	율*
인	인		
시간 부족		83	76.9
연구비 부족		60	55.6
인력 부족		58	53.7
연구에 대한 자신감 부족		56	51.9
연구에 관련된 설비 부족		47	43.5
간호행정자 또는 상급자의 협력 부족		21	19.4
환자 또는 대상자의 협력 부족		14	13.0
의사의 협력 부족		14	13.0
동료의 협력 부족		12	11.1
기 타		3	2.8

* 연구유경험자 108명에 대한 비율

호를 전공하는 사람은 주로 환자와 질병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회 영역의 응답자는 건강교육, 가정간호, 모아건강관리 분야에서 모아 상호관계, 사회적 지지에 흥미가 있다고 했다. 정신간호를 전공하는 응답자의 흥미영역은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목화하기가 힘들었다.

간호연구의 문제점

연구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지적된 것은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고(76.9%) 연구비 부족, 인력부족, 연구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에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결과이다(표 10). 대부분의 응답자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교수활동과 연구활동의 평형과 조화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같은 문제점은 심층면접에서 한 반응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강의시간에 쫓겨 집중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연구가 승진, 임용 등과 같은 의무로 급하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자신이 없다”고 했다.

한편, 근무기관에서 간호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연구비의 조달과 임용승진, 연구에 대한 강조와 시간 할애 등 행정적 지지와 연구분위기 조성을 들었다(표 11). 이 반응을 보면 대학원과정으로 인해 연구 활동이 촉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주로 대학원과정, 임용, 승진과 같이 외적, 체제적 구속력에 의한 연구활동의 촉진은 일과적 연구로 그치게 되어 연구자들의 일생을 통한 연구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힘든 것 같이 보여진다.

연구비 지원이 연구의 활성화 방안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여지는데 연구비 현황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3%이고 고용기관의 지원은 39.8%였다. 개인 조달에 의한 연구를 한다고 응답한 수가 44.4%에 달하는 것은 간호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비의 확보와 지원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은 연구비의 지급 기간이 대부분 1년이기 때문에 지속성있는 연구나 실무의 적용 효과를 장기간 측정하는 프로그램 평가연구의 시도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대부분이 연구진흥재단에 해당되지만), 2년 지급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므로 연구비 지급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의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응답은 표 12에서처럼,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6.7%였으며 문헌탐색 서비스가 주어지는 설비가 있는 곳에서 연구를 한다는 응답자는 49.1%였다. 응답자의 50%미만(42.7%)만이 연구비 보조가 있다고 나타난 것을 보면 역시 연구비 조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통계학자가 있어서 연구분석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도 26.9%에 불과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간호연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연구영역에 대한 응답은 183개로 나타났다. 이는 51개의 큰 묶음으로 나뉘어졌으며 그중 가장 많은 빈도는 임상적용 가능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표 13). 간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두번째로 많이 나타난 것도 임상연구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이론과 연구, 연구와 실무의 관계를 간과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국문화에 기초한 간호방법의 정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표 11〉 간호연구를 촉진시키는 요인

순 위	요 인	빈 도
1	기관의 행정적 지지, 연구의 분위기	22
2	연구비 조성	21
3	승진, 임용, 계약 등	18
4	대학원 과정	11
5	동료의 지지	7

〈표 12〉 간호연구 진행의 여건

	인수	비율*
연구비 출처		
개인기금	48	44.4
고용기관	43	39.8
교육부	18	16.7
연구진흥재단	12	11.1
없음	14	13.0
관련연구 서비스 또는 설비		
컴퓨터	72	66.7
문헌탐색 서비스	53	49.1
연구비 보조	45	41.7
장소 제공	31	28.7
통계학자	29	26.9
타자요원	20	18.5
자료수집을 위한 보조인력	20	18.5
전문 연구 상담자	13	12.0
실험설비	8	7.4

* 연구 유경험자 108명에 대한 비율

〈표 13〉 한국간호에서 강조되어야 할 연구 영역

순 위	영 역	빈 도
1	임상 적용 가능 연구	48
2	간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29
3	이론 검증 및 구축을 위한 연구	23
4	질적 연구	12
5	한국의 문화에 기초한 간호방법	8

〈표 14〉 한국 간호연구의 문제점

순 위	문 제 점	빈 도
1	임상 적용 연구가 부족하다	26
2	반복/후속연구/지식 축적이 안되고 있다	13
3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다(연구를 위한 연구, 모방정도)	10
4	이론 검증 및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	8
5	임상에서 실시되는 연구가 없다	6
6	실험연구가 없다	6

한국 간호연구 실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비교적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가장 많은 염려를 했고 연구는 많으나 반복, 후속연구가 적어 지식 축적이 안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표 14). 면접대상자 중에서 나타난 가장 강한 반응은 연구를 위한 연구, 모방연구가 많아서 연구의 질적수준에 대한 회의가 있지만 어려운 통계를 써서 발표되는 연구도 많아서 이해가 힘들어 의사소통이 안되며 실무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Hunt(1981)

는 연구의 결과가 임상에서 적용되고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다섯가지로 요약했다.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연구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읽어도 이해가 안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힘이 든다. 또한 연구된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으며 적용을 하려 해도 병원이나 간호행정 당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연구와 임상연구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이는 임상 간호사가 연구 보고서를 읽지 않으며 읽어도 모르며 이해를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다.

연구자 측면에서 보면 읽히지 않고 이해도 안되는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이상 살펴본 간호연구의 현황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요약될 수 있겠다.

1. 한국 간호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연구의 영역과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요인 탐구를 위한 조사방법의 접근 일반도에서 인과관계,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이 증가되고 있다.

2. 그러나 제한된 수의 대학 교수와 학위논문 제출자가 연구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임상 실무자들의 연구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연구자 층이 얇은 제한점이 있다.

3. 연구의 동기나 목적이 임용, 승진, 학위 등 실적위주로 실시되어 외적, 제도적 구속력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의 프로그램에 의한 연구의 영역이나 방법에 대한 핵심 능력 배양이 잘 되지 않는다.

4.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호연구가 이론적 토대위에서 실시되어 이론을 구축하는 받침대의 기능으로 방향을 맞추어가는 경향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론-연구-실무의 연결고리는 아직 잘 만들어지지 못한 현상이다. 실무에 의한, 실무자에 의한, 실무를 위한 간호연구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5. 연구자를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학교나 고용기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6. 연구비 조성과 지원방법이 개선되어 장기간 지속성있게 실무평가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Brown, Tanner, Patrick(1984)는 1952년부터 1980년까지 발표된 주요간호잡지 3개에 발표된 주요간호잡지 3개에 발표된 논문을 고찰한 결과 연구의 숫자가 급증하는 현상이었으나 병실 간호사의 연구는 적고 임상연구는 증가되었으며 이론지향 연구의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론지향적 연

구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사전연구에 기초하지 않고 실시된 연구가 많았다고 했다. 연구방법이 점차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질문지와 면접지에 의존하는 자료수집이 많았다고 했다. 한국 간호연구의 경향이 1984년 이 보고서 발표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제 2000년대를 향하는 시점에서 간호연구는 실무적용을 위한 연구로의 전환점에서 있다.

임상 실무와 이론개발에 쓰여져서 고려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므로 사전연구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로 연결되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연구가 일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실험적으로 간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기에는 불충분한 지식으로 되어 있다.

둘째, 연구의 결과가 임상실무자에게 읽혀지려 이해되게 하기 위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서 진행되며 연구보고서의 홍보가 잘 되어져야겠다.

셋째, 간호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의 도출과 도구개발의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인의 문화현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자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생리적 변화, 관찰 등 보완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째, 변화, 과정, 장기적 결과를 알기 위한 종단적 연구, case control 연구가 더 필요로 된다.

Champion(1989)의 보고에 의하면 어떤 외적 지원이나 유용성, 환용성 보다도 연구자와 실무자의 태도에 의하여 연구의 실무 적용과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태도의 변화는 가능한 인간의 사고의 틀이 굳어 버리기 전, 두뇌작용이 유연성과 탄력성으로 가득한 어린 시기에 시도하여야 할 것 같다. 이에 간호연구가 이론과 실무의 교량 역할을 함과 실무에 적용이 가능할 때에만 연구의 생명력이 부여됨에 대한 인식이 대학 기초 교육과정에서부터 일깨워지고 경험되어야 할 것 같다.

참 고 문 헌

- 김수지(1989). 한국에서의 이론개발을 위한 미래 전망. 대한간호학회주최 간호이론 세미나.
- 오가실(1987). 간호연구의 학문성과 실용성. 간호 전문직 :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194-200.
- 조결자(1977). 한국의 간호연구 경향에 관한 통계적 관찰. 경희간호연구지, 1(1), 49-58.
- 홍근표의(1983).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분석. 대한간호, 22(3), 115-30.
- Champion, V.(1989). Variables related to research utilization in nursing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4, 705-10.
- Hunt, J.(1981). Indication for nursing practice : The use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 189-94.

<Abstract>

Nursing research issues and trends : views from Korea

Kasil Oh, R.N., Ph. D
Hee Sun Sin, R.N., Ph. D
Hee Soon Kim, R.N., Ph. D

The purposes of study was : 1. To identify the direction and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n Korean Nursing. 2. To discu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 in Korea that warrant nursing research. 3. To delineate the factors that facilitate and/or hinder nursing research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t six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The schools which were selected had doctoral programs at the time, the data were collected in 1990. Four of the schools wer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capital city, Seoul, and two were in two other cities similar in size.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tudy was 283 nurses.

The instrument for the research was the English version of Research Profile Questionnaire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the researchers and was validated in its translation by two professors. A pretest procedure was done before the data collection process.

Of the population of 283, 210 subjects received the questionnaire and 150 subjects responded(71.4%). Excluding incomplete questionnaires, 141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were content analyzed for themes and categori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Respondents currently involved in nursing research numbered 108(76.6%), but 33(23.4%) did not have any research experience. The inexperienced respondents tended to be younger than the experienced subjects and most(60.6%) were employed in hospitals, while 82.4 percent of the experienced nurses were employed in nursing schools.

Among the respondents with research experience, 68.5 percent were involved in one to three projects and 31.5 percent were engaged in four or more projects. The experienced nurses indicated that nursing research in Korea is active.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s of the inexperienced were that nursing research is not active.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research subjects were patients(76.9%, 83 respondents) followed by nurses, healthy persons and nursing students. The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healthy persons as study subjects, could be explained as a concern of nurses for healthy persons as well as for ill patients. The aforementioned literature review showed a dramatic change in the kinds of study subjects ; approximately 33 percent were patients but 25 percent were healthy subjects of various ages.

The hospital was the prevailing research setting(67.6%) but at the same time various community settings were used. This is a changing phenomena in nursing research of Korea.

Current research designed to build on previous studies amounted to 75 percent; about 39.8 percent were theory and hypothesis generated. Over 65 recommended additional research focusing on hypothesis-testing or theory building. The previously quoted literature review found that only 4.0 percent of the study questions were developed from a theoretical framework.

The most frequently listed current major focus of nursing research was stress and adaptation. Patients with cancer, pain, social support and care of the elderly were the next most frequently reported. These concerns may reflect problems associated with a technological and industrializing society.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problem was lack of clinical research. The need for replication research and research that contributes to the accumulation of nursing knowledge were found to be rare in Korean research. A need for theory testing and theory construction research was also identified.

Although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were often utilized in nursing research, the results were frequently considered by the interviewers not to be applicable in practice, and readers had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findings. Even though the number of clinical nurses involved in research is increasing, it is still considered inadequate.

Among 108 respondents, 83(76.9%) gave lack of time as a barrier to conducting nursing research. Over fif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orted lack of funding or, personally, low confidence in research skills as barriers.

The respondents offered 183 suggestions for future emphasis in nursing research. Among the 51 areas of emphasis, clinical research received the highest number and nursing intervention was nex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nursing research should be based on theory, be related to practice and relevant to the situation of a unique Korean culture.